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포럼 및 제85차 중국 개혁 국제세미나 참석 제21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등 참석 출장 보고서

2019. 11

제주연구원

1. 출장개요

□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및 하이난성은 2018년 MOU를 채결하고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2019년 1월 제주연구원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및 양 지역 주요 기관들은 공동으로 '제주-하이난 포럼'을 하이커우에서 개최하여 양 지역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제주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제주도민과 함께 지역발전, 공동성장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해외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제주발전에 대한 시사점 모색이 필요함

- 특히,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과의 교류협력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2018년 4월 13일 하이난성 건설 30주년 기념회의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선포하였으며, 중국 중앙정부와 하이난성 지방정부는 중국의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런 배경하에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중국 특색자유무역항 연구원은 공동으로 '2019 중국 특색자유무역항 건설 가속화의 탐색'이란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음

- 본 포럼에서는 중국의 고품질, 고수준 개혁개방 플랫폼의 구축과 제도혁신 가속화 등에 대한 중요 의제 논의와 자유무역항 건설에 따른 혁신적 제도 수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제주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싱크탱크로써 이번 포럼 참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과 산업개방,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현황 및 개방화에 대해 소개하였음

- 또한, 제주연구원은 중국 국내외 학술기관과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

방에 따른 국제 협력기회를 모색하였음

○ 한편,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은 10월 26일에 하이커우에서 '제85차 중국개혁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세계 전문가와 정부 인사들이 모여서 중국의 개방 경험과 성과를 논의하면서 중국과 세계의 공동성장방안을 모색하였음

-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경제의 성장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울러 세계 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였음
- 현재, 세계 경제 및 정세가 급하게 변하고 있으며, 중국과 국제 협력국 간의 관계 재구성, 협력 강화, 경제발전 촉진 등 중요한 문제가 부상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중국 공공외교협회, 중국일보 등 주요 기관과 함께 '변화 국면 속의 중국과 세계'란 주제를 선정하여 세계 전문가 공동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음
- 제주연구원은 이번 세미나 참여를 통해 제주의 경제개방과 아시아경제, 세계 경제의 공동성장 방안에 대하여 중국 및 해외 전문가, 학자, 정부 관계자와 공동 논의하였음

○ 또한, 본 출장에서는 중국남해연구원을 방문을 통해 해양경제, 해양산업의 협력발전과 해상실크로드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공동협력기회와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와 함께 본 출장에서는 제21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석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제주의 사례 발표와 한중일 지방정부간 실질적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였음

□ 기 간 : 2019년 10월 23일 ~ 10월 28일(5박 6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중국 남해연구원,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 여행자 인적사항 :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정지형 중국연구센터장, 양자수 전문연구원

□ 주요일정

월 일 (요일)	출발	도착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0월 23일 (수요일)	제주	하이커우	(이동)	• 제주 출발(13:40) → 상해 도착(14:10) • 상해 출발(16:45) → 하이커우 도착(19:50)	
10월 24일 (목요일)	하이커우시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 2020년 제주-하이난 포럼 개최 관련 간담회	- Chi Fu Lin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장 - Wu shi chun중국 남해연구원장
			중국 남해연구원	• MOU 체결, 정기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관련 간담회	
10월 25일 (금요일)	하이커우시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포럼 참석 - 09:00 – 18:00	-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 - 해남성 및 하이커우 시 정부 인사 - 중국 내외 학술기관 및 연구자(상해, 광동 등 자유무역실험구) 등 - 홍콩, 싱가폴 등 국제자유무역항의 전문가 ***원장님 발표**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리와 산업개방**
10월 26일 (토요일)	하이커우시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 제 85차 중국개혁국제 세미나 참석 - 09:00 – 18:00	- 보스니아 천총리 - 유럽아시아 연구센터장 등 ***제주연구원 협력기관으로 참여** **개막식 및 '아시아의 개방과 세계' 회의 참석** ***원장님 발표(주제 발표)**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세계화**
10월 27일 (일요일)	하이커우 상하이		이동	• 하이커우 출발(07:50) →상해도착(10:35)	
10월 28일 (월요일)	상해 마쓰야마		이동	• 상해 출발(09:15) → 마쓰야마(12:10)	- VIP 상견례 및 개회식 참석 : 한중일 대표기관 대표 및 에히메현 지사
10월 29일 (화요일)	마쓰야마 시			• 한중일 지방교류회의 - 10:00 – 20:00	**동북아 지방정부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매력창조(VIP 세션)** ***원장님 발표(메인 세션 고위층 인사 세션)** **: 지역자원과 매력창조 – 제주지역 사례중심** -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 - 광주광역시 부시장, 대구광역시 국제관계대사 등
10월 30일 (수요일)	마쓰야마 시			- 현지 산업시찰	- 미나미시코쿠 농장(일본 최대 감귤 생산지) 등
10월 31일 (목요일)	마쓰야마	제주	(이동)	• 이동 • 마쓰야마(08:30) - 후쿠오카(09:25) • 후쿠오카(12:50)-제주(14:00)	

2. 출장내용

1) 중국남해연구원 방문 및 협력방안 좌담회 개최

○ 일시: 2019년 10월 24일 15:00~18:00

○ 장소: 중국남해연구원

○ 회의참석자:

제주연구원: 김동전원장, 정지형 중국연구센터장, 양자수 전문연구원

중국남해연구원: 우츠춘원장, 린용신 해상실크로드연구소장, 옌옌 해양법률 및 정책 연구소장, 장신웨 대외교류부장, 왕스위 대외교류부 주무관

○ 중국 남해연구원은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강동신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6년에 '하이난 남해연구센터'란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2004년 중국 중앙정부 국무원의 승인을 통해 정식으로 '남해연구원' 이름으로 변경하였음

- 남해연구원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와 교류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2013년에 베이징에서 남해연구원 분원을 설립하였고, 2014년 남해연구원 중미연구센터가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운영되었음
- 20여 년의 탐색과 발전을 거쳐 남해연구원은 남해전략, 남해역사, 남해 지연정치 및 주변국의 남해정책, 그리고 국제법과 남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대책 등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남해연구원은 해양법률정책연구소, 해양경제연구소, 해양과학연구소, 해상실크로드연구소, 대외교류부, 행정사무실 등 6개 부처로 구성하고 있음
- 현재 남해연구원은 미국, 영국, 일본,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대만 등 전 세계 20여개 국가 및 지역과 함께 연구활동 및 우호교류를 유지하고 있음

○ 김동전 제주연구원장과 우츠춘 중국남해연구원장은 10월 24일 중국남해연구원 회의실에서 정식 좌담회를 통해 양 기관의 향후 협력방향 논의하였음

- 양 기관은 해양경제, 해양산업, 해양안보 등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등 거시적인 연계방안과 비전을 토론하였음

- 양 기관은 상호 간 세미나 참석과 공동학술 연구활동 진행, 그리고 공동세미나 개최 등에 대한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그림 1> 제주연구원-중국남해연구원 좌담회

2)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포럼

□ 개요

○ 주관: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연구원
주최: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중국해남연구원

○ 일시: 10월 25일

○ 참여자:

- 중국 내외 학술기관 및 연구자(상해, 광동 등 자유무역실험구) 등

- 홍콩, 싱가폴 등 국제자유무역항의 전문가 등 300여 명

■ 세미나 주요 내용

○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포럼은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의 '조기 수확' 및 '고수준 개방과 제도혁신' 등 2개 세션으로 진행하였음

-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펑썬(彭森)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장, 송샤오우(宋曉梧)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장, 천윈링(陳文玲) 중국국제경제류센터 총경제사, 훠젠궈(霍建國)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연구원 전원장, 저우진핑(周晋平)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전부장, 우츠춘(吳士存) 중국남해연구원 겸 중국특색자유무역항연구원 부원장 등 국내외 석학들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가속화 관련 중대한 문제에 대해 교류하였음

○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은 '고수준 개방과 제도혁신'세션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내용을 제시하였음

- 제주는 1950년대까지는 산업발전이 매우 낙후된 지역이며, 1960대부터 제주발전 전략으로 제주자유지역 설정 구상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해 왔고, 2002년부터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음
- 2006년에는 이를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대대적으로 위임하여 투자 유치, 개발 허가 권한 등을 일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자치모범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2개 핵심 축으로 삼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목표는 : ①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자치모범도시 육성 ② 관광, 휴양, 교육 등 지식기반 산업도시 ③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 미래성장 핵심산업(카본프리 아일랜드, 블록체인 등) 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임
- 현재, 제주특별법의 권한 이양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로 총

4,537건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방법은 3가지 형태로 첫째,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방법,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주에 위임하는 방법, 셋째, 법적 특례 규정으로 제주에 위임하는 방법이고, 이는 하이난의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방법에 참고가 될 것임

○ 현재 중국에서는 싱가포르, 두바이, 홍콩을 주요 모델로 하여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특히 해남성 자유무역항의 권한 확대와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음

<그림 2>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포럼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발표-1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발표-2

중국 특색자유무역항 포럼 단체사진

2) 제85차 중국개혁 국제세미나

□ 개요

○ 주관: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 공동주최: 제주연구원 등 다수

○ 일시: 10월 26-27일

○ 참여자: 국내외 전문가 다수, 약 500명

■ 세미나 주요 내용

○ 최근 세계 경제는 급격한 변화 국면에 직면하고 있고,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중국은 새로운 개방과 변혁 대국으로서 세계 기타국가 간의 정치, 경제, 무역, 협력, 국방 등 다양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중국은 현재 세계 국가와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세계 많은 국가 및 지역과 함께 공동으로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에 관심을 두고 있음

○ 2019년 10월 26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중국은행, 중국일보 등 기관은 "급격 변화 국면 속의 중국과 세계"를 주제로 제85차 중국개혁 국제세미나를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 개최하였음

- 이번 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경제 세계화의 새로운 도전', '중미 관계의 흐름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개방적 아시아와 세계', '중국 14차 5개년 발전 계획 시기의 개혁개방' 등을 놓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음
- 중국 정부 국가급 부서 및 위원회,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대표 등 500여 명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였음
-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은 '개방적 아시아와 세계' 세션에 참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방 경험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대하여 발언하였음

○ 본 세미나에서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은 다음과 같이 견해를 제시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제주의 세계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의료관광, 크루즈 관광, 카지노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에 주력하고 있고, 외국인의 자유 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대한 특례 마련을 언급하였음
- 2001년 제주관광객 수는 내국인 420만, 150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관광객 환경수용력 문제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제주의 서비스산업은 71.5%로 특히 관광은 제주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관광 이익이 지역 및 주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음
-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한 글로벌 교육사업에 대해 언급하였음
- 특히 최근 미중관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향후 아시아 중심의 경제체제로의 변환에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 자유무역항과 한국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연계방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음

○ 중국은 현재 자유무역항 건설과 연계하여, 중국 남해를 매우 중요한 전진기지로 생각하고 있음
- 중국 남해는 외교, 안보, 해양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특히 우스춘 남해연구원장에 따르면 중국 남해는 동남아 연선국가와의 협력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며, 중국의 글로벌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음

○ 일본의 쩌우웨이셩 교수에 따르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있어 싱가폴, 홍콩 등 경제적 성장 모델 이외에 일본의 고령화 정책 등 선진국 사회복지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그림 3> 제85차 중국개혁 국제세미나

제85차 중국개혁국제 세미나 사진

○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은 포럼 참석 기간, 하이난성 방송국, 싼샤시 방송국, 하이난일보 등 매체의 인터뷰를 받았음

- 하이난성 기자들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과정 중 한중 양국 간 협력 가능성', '과거 1년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성과에 대한 생각',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가속화에 대한 제언', '하이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등 주요 질문을 제기하였음

○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 신남방정책이 중국의 일로와 연계할 수 있다고 하며, 특히 신남방 정책과 해상실크로드 간의 연계가 더욱 현실적이며, 양 지역 간 해양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언급하였음

- 하이난성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이는 현재 제주 또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발전, 고품질 관광산업 육성 등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유사한 고민으로, 향후 하이난성은 고품질 관광산업 육성방안 모색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음

○ 김동전 원장은 하이난성의 과거 1년 간 건설성과 중 특히 의료관광 구역, 블록체인, 첨단기술 산업단지 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하이난성의 대외협력 강화와 자유화 수준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언급하였음

- 특히 하이난과 제주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양 지역 간의 직항 노선 개설, 관광 상품 공동 개발, 우호 정책의 상호 보완 등 공동 협력을 제기하였음

<그림 4> 중국 하이난성 주요 매체 인터뷰

4) 제21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석

□ 개요:

○ 일　시 : 2019. 10. 28.(월) - 10. 29.(화)

○ 장　소 : 일본 에히메(愛媛)현 ANA크라운플라자호텔 마쓰야마

○ 주　최: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에히메현

○ 협　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 참여자: 한·중·일 3개국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및 지방공무원 등 500여 명

○ 본 회의는 한·중·일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3자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질적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는 것임

- 매년 3개국 지방정부 국제교류 지원 기관 주관하여 본회의를 순환 개최키로 1999년 합의하여, 올해는 일본 에히메현에서 개최하였음

○ 특히 올해의 경우 중국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 약 250여 명이 참석하였음

□ 주요내용

○ 10월 28일 VIP 상견례는 한중일 VIP를 대상으로 에히메현 지사님 주최로 개최되었음

- 차기 개최지 선정과 최근 한중일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그림 5> VIP 좌담회 참석

VIP 상견례

○ 10월 29일 본 회의에서는 오카다 다케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고노 카즈히토 일본 에히메현 부지사, 김동전 한국 제주연구원장, 왕 신웨이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시장의 '동북아 지방정부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매력창조' 주제발표가 있었음

○ 본 회의에서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은 지역이 가지는 자연적, 구조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자산인 지역자원 유형과 활용정책, 한국의 지역자산 활용 마을만들기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음

- 또한 제주지역 자원 활용 사례로써 제주 해녀, 흑룡만리 밭담, 제주 올레길, 제주 6차산업, 제주개발공사의 감귤쥬스와 삼다수 사업 등

에 대한 제주 고유의 현황을 소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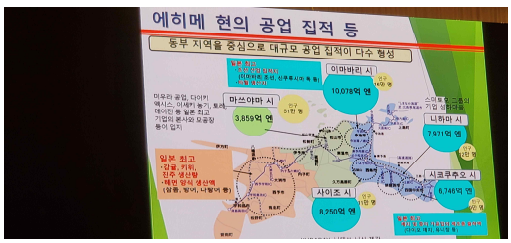
○ 고노 카즈히토 일본 에히메현 부지사는 마쓰야마의 지역 자원 활용 사례, 특히 감귤의 경우 일본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관 컨텐츠 산업에 대한 소개를 하였음

- 특히 세토우치 시마나미 해도는 '2019년 꼭 가봐야 하는 세계의 명소 52선' 중 일본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곳으로 에히메현과 히로시마현 사이의 섬들을 8개의 대교로 연결한 코스로 싸이클링의 성지로써 관광 상품화 시켰음

<그림 6> VIP 주제 발표

세미나 전경

기조 강연



일본 주제 발표

한국 주제발표

○ 이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진흥’,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축으로 한 도시 조성’,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등 각 3가지 세션의 사례발표가 진행되었음

-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진흥’세션에서는 임현근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영사(한국), 푸진광 안후이성 츠저우시정부 부시장, 류아이보 랴오닝성 다롄시정부 비서장(중국), 다나카 아키라 다카야마시 해외전략부장(일본)의 발표가 진행되었음
-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를 축으로 한 지역 만들기’세션에서는 주중철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한국), 허친 베이징시 도시계획설계연구원 부원장, 후이 충칭시 사핑바구 선전부부장(중국), 야마구치 켄타로 가나가와현 생명·SDGS담당이사(일본)의 발표가 진행되었음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시책’세션에서는 추한철 한서대 교수(한국), 자오후이 장시성 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 리청즈 랴오닝성 인민대외우호협회 부비서장(중국), 아라세 야스코 후쿠오카시 부시장(일본)의 발표가 진행되었음

○ 이와 함께 한중일 지방정부에서 지역 간 교류확대를 위한 교류부스 운영을 진행하였음

- 참여기관으로 한국은 경상북도, 인천, 전라남도, 중국은 산시성, 충칭시, 구이저우성 등이 참여하였음

○ 대련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우호도시이며, 중국 측에서도 제주도와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원하고 있었음

- 제주연구원의 경우 향후 대련시 외판실을 통해 요녕성 사회과학원과의 MOU 체결 및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그림 7> 참여 지자체 교류

지자체 교류 부스

에히메현 부지사 및 광주시 국제관계대사

중국 대련시 외판실 주임